

부처님 가르침이 사업 성공 비결

창립 20돌 맞은 부산불교실업인회... 212개 불자기업회원들 보시 경영으로 불국토 건설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3월 24일 창립기념법회를 개최했다. 김윤환 회장(가운데)은 "불자 기업답게 더욱 정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기업을 운영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기업이 정신의 기본입니다. 고객을 속이는 제품을 만들면 안 되듯 부처님은 남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상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 자연히 기업은 잘되기 마련입니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 이하 실업인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김윤환 회장

은 3월 24일 부산 진구 터존뷔페에서 열린 창립기념법회에서 “우리가 얻는 재물은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재물은 모두의 것이기에 언제든지 보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업인들은 욕심에 찬 경영이 아닌 ‘보시(布施) 경영’을 배우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실업인회는 이날 행사에서 창립 20년사를 정리한 <20년사>를 발간해 진일보 등일단(進一步 登一段)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

운 청소년 13명에게는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1년 창립한 부산불교실업인회는故 김정태(前 사직골프랜드 대표) 초대회장과 前 강병중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윤환 회장 등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부처님의 감은(感恩)을 입은 실업인들이 보살정신을 살려, 자비와 지혜가 구축한 불국토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실업인회는 설립 당시 세무사업으로 불교병원과 불교대학, 불교방송국 건립을 발원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겪는 등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2003년 7월 부산불교실업인회관을 건립해 전승회관에서 신생활동을 전개하고, 묘광선원 법당을 조성했다.

김 회장은 “중요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좋은 도반들과 함께 신력을 고양하면서 고승 영이 아닌 ‘보시(布施) 경영’을 배우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실업인회는 이날 행사에서 창립 20년사를 정리한 <20년사>를 발간해 진일보 등일단(進一步 登一段)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

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업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199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부산지역의 불교계 활동이 왕성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보살불교’라고 부를 만큼 불자 중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실업인회의 불자기업인들 대다수는 남성불자이고, 입회와 동시에 배우자들은 ‘마아부인회’에 자동 가입된다. 정기법회에는 자녀와 함께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등 포교사의 역할도 맡고 있다. 실업인회는 평생회원제를 도입해 처음 가입비만 내면 평생회원으로 활동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회원 자격이 승계된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미처 승계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 아쉽다. 사업상 마주하게 될 이웃 종교인과 손익을 계산해 불자실업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법은 절대 없다. 불자기업이라는 이름표를 단 만큼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실업인회원들이 존경할 만한 사

람이라고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역시 불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실업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212명. 그중 절반 정도인 100여 명이 실제로 정기법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윤환 회장의 영광도서(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는 수차례 언론에 소개돼 불자기업이면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불교서적을 보유하고, 불교서적을 가장 좋은 자리에 비치하는 서점이다. 그 밖에도 부산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굴지의 기업들이 불자기업으로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있다.

회원에는 조광래 해동병원 원장, 최종태 동일냉장 대표이사, 최상진 학교법인 동성학원 이사장, 신경문 광진운수 대표이사, 강병중 넥센 회장, 이영숙 코모도호텔 회장, 이근철 삼정회장, 유용주 삼신교통 대표이사, 김구태 아쿠아펠리스호텔 회장, 김태일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등 212개 불자기업의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불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현원개발 최 호 섭 대표이사

16년간 쌀 3500포대 기증



‘1995년 설맞이 떡국 나누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한 복지관의 진단지 한 장이 한 사업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다. 사회 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중, 조계종 포교원장) 산하 양정재가 노인복지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별 뜻 없이 시작한 쌀 기증은 어느덧 16년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기증한 쌀은 자그마치 3500포대에 이른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과 반찬배달 등에 어려움 겪는다는 사회복지사의 한마디에 선뜻 다마스 차량 1대를 쾌척했다. 연간 3억여 원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과 사찰에 환원하는 ‘통큰 부산산나이’ 현원개발 최호섭(51, 불명 보성) 대표이사를 만났다.

그의 회사가 자리한 곳은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 마린시티. 30~8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 및 오피스텔이 밀집한 신흥부촌이다. 그의 회사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린시티와 상반되는 회사 분위기에 3번 놀란다. 맨 처음 방안 가득 울려 퍼지는 지장보살 염불기도 소리에 한 번, 반갑게 맞이하는 최호섭 대표에게 너머로 보이는 20여 점의 불화에 또 한 번,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 옆에 나란히 걸린 5개의 사찰달력에 놀란다. 집무실 천정에는 연등 2개도 나란히 걸려있어, 한 눈에 불자기업임을 말해준다.

▲ 불교와의 인연은 “본격적으로 신생활을 시작

한 것은 IMF 무렵이다. 당시 많은 사업가들이 그랬듯 나 역시 위기가 찾아왔고, 모친의 손에 이끌려 선암사(주지 원범)에 가게 됐다.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을 위해 불공 들이는 모친의 모습에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발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다.”

▲ 바쁜 외중에 신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자마자 보이차를 한잔 마신 뒤 기도와 함께 108배를 한다. 그리고 집, 자동차, 사무실 등 내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 불경CD를 두고 24시간 내내 염불을 따라 외운다. 덕분에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교외 사찰을 찾아가며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 불교가 사업에 끼친 영향은.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지만 버는 만큼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회사의 사훈은 ‘내 주위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라’다. 가족과 회사 동료에게 먼저 자비행을 실천하자는 뜻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나누고, 조금 벌면 조금 나누는 계산적인 베풀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일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 앞으로 계획은

“항상 사업이 잘되면 신생활에 게을러진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는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배우고 실천하려 한다.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서 혼자 잘사는 이기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이웃이 되고 싶다.”

다음 달 창단할 사내 봉사단체 ‘(가)사랑나누기’ 회원들과 함께 입을 빨간 조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최호섭 대표. 그의 미소 너머로 중국 당나라 스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실천한 포대화사의 모습이 스친다.

박지원 기자

“남과 북,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부산불교聯, 천안함 1주기 추모위령대재 봉행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3월 26일 부산 시청녹음광장에서 추모위령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아 부산에서 천안함 호국장병 1주기 추모위령대재가 봉행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

여, 범어사 주지)는 3월 26일 부산 시청 녹음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넋을 기리고, ‘북한 동포에게 드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각 스님은 대북 메시지에서 “한 동포라고 굳게 믿었던 남과 북은 신뢰가 무너져 원망과 미움을 갈수록 깊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는 분단으로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잃어버린 세월만큼 이데올로기가 고착되었을 뿐, 아직도 남과 북에 두고 온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며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정여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극락세계는 맑고 깨끗한 연꽃 같은 마음만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꽃다운 영가께서 극락에서 왕생해 맑고 고요한 영원의 세계에 머물러 달라”고 축원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지도자포럼 제3대 회장 허인구



허인구 회장은 3월 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열고, 취임식을 개최했다.

허인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불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장학사업과 회원 간의 정보공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 약사회, 기본 교리강좌

부산불교약사회(회장 박정주, 이하 약사회)가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창립 22주년을 맞은 부산불교약사회는 4월 9일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 14일~7월 28일 총 17주간 매주 목요일 마련되는 강좌는 ‘불교사상’과 ‘부처님의 생애’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051)853-8539 박지원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고품질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500,000원 (상차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명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장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